

윤홍천 | William Youn

피아노 Piano

윤홍천은 견고한 테크닉과 섬세한 감성으로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불리며 클래식 본고장 유럽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이다. 최근까지 이어진 그의 슈베르트 소나타 전곡 녹음은 독일의 클래식 음악 잡지 크레센도로부터 '세기의 명반'이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타 예술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면모와 범장르적인 깊이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에서 태어난 윤홍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와 예원학교에 수석 입학한 후 13 세에 도미하여 보스턴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와 월넛힐 예술고등학교에서 수학, 독일 하노버 음대에서 칼 하인츠 캐머링을 사사했으며, 이탈리아 코모 아카데미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교과 과정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16 세의 나이로 미국 보스턴 조던홀에서 벤저민 잔더가 지휘하는 보스턴 유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 이 공연의 성공은 남미 주요 도시 투어로 이어져 윤홍천은 일찍이 연주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2001 년,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윤홍천은 런던 위그모어 홀, 빈 콘체르트하우스,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 피에르볼레즈 홀,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도쿄 오페라 시티 콘서트홀, 프랑크푸르트 알테오퍼, 앤티워프 싱헬 센터, 로스앤젤레스 월트디즈니홀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공연하며 이름을 알렸으며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뮌헨 필하모닉,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다.

국내에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지휘 정명훈), 경기필하모닉(지휘 성시연), 수원시립교향악단(지휘 김대진), 인천시립교향악단(지휘 금난새), KBS 교향악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내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에서 인천시립교향악단(지휘 이병욱)과 협연한 바 있다. 매년 독주 및 실내악으로 이름 있는 국제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있는 그는 그슈타트 메뉴인 페스티벌, 슈바르첸베르크 슈베르티아데, MITO 세템브레무지카, 그라페넥 페스티벌, 쉘레스비히 홀슈타인 뮤직 페스티벌, 라인가우 뮤직 페스티벌, 하이델베르크 스프링 음악축제,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페스티벌, 뷔르츠부르크 모차르트 페스티벌, 슈베칭엔 SWR 페스티벌, 다보스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으며, 닐스 뮙케마이어, 자비네 마이어, 줄리안 슈테켈, 카롤린 비트만, 베로니카 에베를레, 아리스 스트링 콰르텟, 토마스 햄슨과 함께 무대에 오르고 있다.

2011 년 동양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독일 바이에른주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젊은 예술가상'을 수여 받은 그는 빌헬름 켐프 재단의 최연소 최초 동양인 이사진으로 선출되며 의미 있는 사업에도 기여하고 있다. 국내 유일 소니 인터내셔널 아티스트인 그는 첫 솔로 음반 <Schumann - Schubert - Liszt>를 2018 년에 발매하였으며, 작년 11 월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프로젝트의 마지막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포노 포럼 지로부터 '결함 없이 완벽하게 구현된 자연스러움'이라는 평을, 뮌헨 메르쿠르 지로부터 '슈베르트의 실존적 절망을 표현해냈다'는 극찬을 받았다.

최근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프로젝트 마지막 음반 발매를 기념하여 슈바르첸베르크 슈베르티아데,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에서 리사이틀을 가졌으며, 오푸스 클래식 어워즈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또한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박영희의 피아노 협주곡을 초연했으며, 하인츠 스피를리가 안무한 빈 슈타츠발레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초연에 연주로 참여했다.

“그는 크리스티안 자카리아스의 명료함과 알프레드 브렌델의 섬세한 뉘앙스,
다니엘 바렌보임의 따뜻한 음색을 모두 갖추고 있다.”

- 독일 Fono Forum

“이 감각적인 리사이틀은 4 개의 주요 유럽의 음악들을 묶는 연결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손가락의 가벼운 움직임으로 윤희천의 연주는 즐거우며
그는 부드러움과 춤을 추는 듯한 장난기, 그리고 반짝이는 기교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듯 연주한다. ”

- BBC 뮤직 매거진”

“그는 슈베르트부터 후기낭만주의까지의 음악으로 비엔나의 전경을 확장해나간다.

이 얼마나 시적인 데뷔인가!”

- hr2-kultur

“유모레스크의 이 장엄한 해석은 감수성, 감동, 그리고 낭만주의에 대한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France Musique

“지금까지 이와 같은 슈베르트는 들어본 적이 없다.”

- Crescendo